

기존도로 900m 사라져 주민불편 우려

반암 · 송죽 주민들과 약속한 ‘해안초소 통로확장’ · ‘송죽 시내버스 진입’ 이행 여부 불투명

국도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송죽~반암’ 구간 문제점 진단

국도 7호선 간성~현내 4차선 확포장 사업 가운데 1공구(간성~거진) 송죽~반암 구간 900m가 기존 도로를 살리지 않고 4차선과 합쳐지는 것으로 진행돼 준공 후 교통사고 및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간성~거진 구간에서 기존도로를 살리지 않고 4차선과 합치게 설계한 곳이 유일하다.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에 따르면 송죽에서 반암 방향의 경우 기존 도로를 1차선만 남기고 일반통행으로 진입해, 오정리 입구에서 4차선과 만나도록 설계했다. 이곳에서부터 반암리 강원서각까지 900m는 4차선도로만 운영된다.

또 반암에서 송죽 방향의 경우는 강원서각에서부터 4차선도로에 진입한 뒤 오정리 입구에서 고가도로를 타고 올라가도록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고가도로 정상에 설치된 우측 통로로 빠져나가게 되며, 이 경우 현재 송죽 시내버스 승강장을 100여m 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반암리 주민들은 강원서각부터는 송죽방면으로 농기계를 운행할 때 큰 불편이 예상되며, 송죽리 주민들은 반암에서 송죽 방면 시내버스가 마을에 서지 않는 불편을 겪게 된다. 두 마을 모두 일반 차량이 4차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처럼 주민불편이 우려되자

최근 감리단과 마을 대표들이 만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주민들이 믿고 있는 내용과 감리단이 생각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암리=반암리의 경우 농기계운행을 위해 해안초소 방면으로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통로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리단 박창용 단장은 “해안초소 통로박스 확대 문제는 군부대의 특성상 승인이 금방 나지 않아서 곧바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존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내버스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송죽~오정리간 기존 도로를 2차선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1차선 일방통행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감리단

시 우리 마을을 지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송죽~반암 구간에 대한 민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인근에 있는 군부대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위병소쪽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 서쪽 산을 깎아 부족



국도 7호선 간성~현내 4차선 확포장 사업 ‘송죽~반암’ 구간에서 기존도로와 4차선이 합쳐지는 오정리 입구. 3개의 길이 보인다. 왼쪽부터 ①군부대 위병소로 향하는 새로운 진입로 ②새로 생기는 도로 ③기존 7호선 국도. 현재 공사는 ②와 ③을 합쳐 4차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송죽리와 반암리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합형구 군수 때에는 ①과 ②를 합쳐 4차선 도로를 만들고 ③기존도로는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그후 고성군이 군부대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있는 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안초소를 통과하는 통로박스를 넓혀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주민들과 감리단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민들은 내년 봄 농번기까지는 통로박스를 넓혀주기로 약속했다고 믿고 있지만, 감리단은 간성~현내 4차선 확포장 공사 전체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감리단의 입장대로라면 전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군부대 협의

보인다”며 “우리로서는 현내까지 전체 구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해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암리 함용수 이장은 “감리단과 만났을 때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송죽리=송죽리의 경우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주민들은 오정리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 반암에서 송죽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가 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고 믿고 있다. 이 경우 공현진처럼 시내버스가 마을로 진입해 기

에서는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안을 심의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사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감리단 박창용 단장은 “반암에서 송죽 방면의 시내버스가 송죽리 마을을 지나기 위해서는 송죽에서 반암으로 진입하는 기존도로를 현재의 1차선 일방통행에서 2차선 양방통행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현재 심의중이지만,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송죽리 문형모 이장은 “오정리 입구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내버스가 마을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수님도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 반드

한 땅을 확보한다면 기존도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합형구 군수 당시 고성군의 요청으로 군부대 부지를 일부 편입시켜 4차선 도로를 만들고 기존 도로는 살리기로 했으나, 그후에 고성군이 군부대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지금까지 900m가 합쳐지게 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발주한 간성~현내 구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최명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